

# 코로나19로 여성에게 집중된 노동위기를 해소하려면: 서울시 현황과 정책과제

공 주(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본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UN Women, 2020)\*.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은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고용안정성이 낮아 코로나 19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을 더 크게 겪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전후의 서울시 여성 노동시장의 주요 지표를 비교 분석하여 코로나19가 서울시 여성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위기에 대응하는 단기 과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회복과정과 향후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에 여성노동의 위기와 노동시장 성 불평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함께 도출하였다.

## ✓ 코로나19 전후 서울시 여성노동의 변화 분석 개요

**분석자료** |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2019년과 2020년 상반기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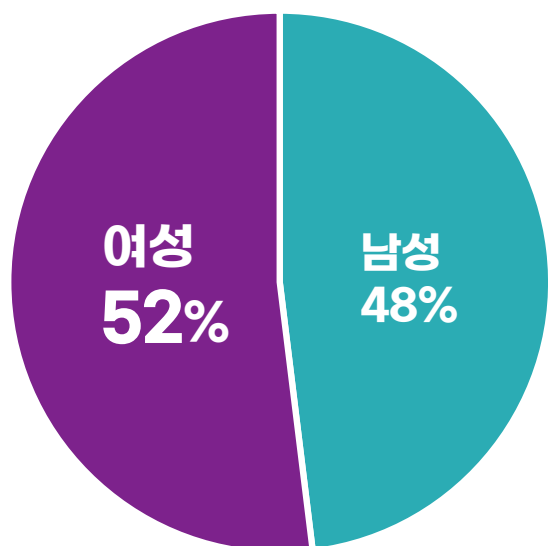
**분석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인구

2019년 여성 15,845명, 남성 14,464명 (총 30,30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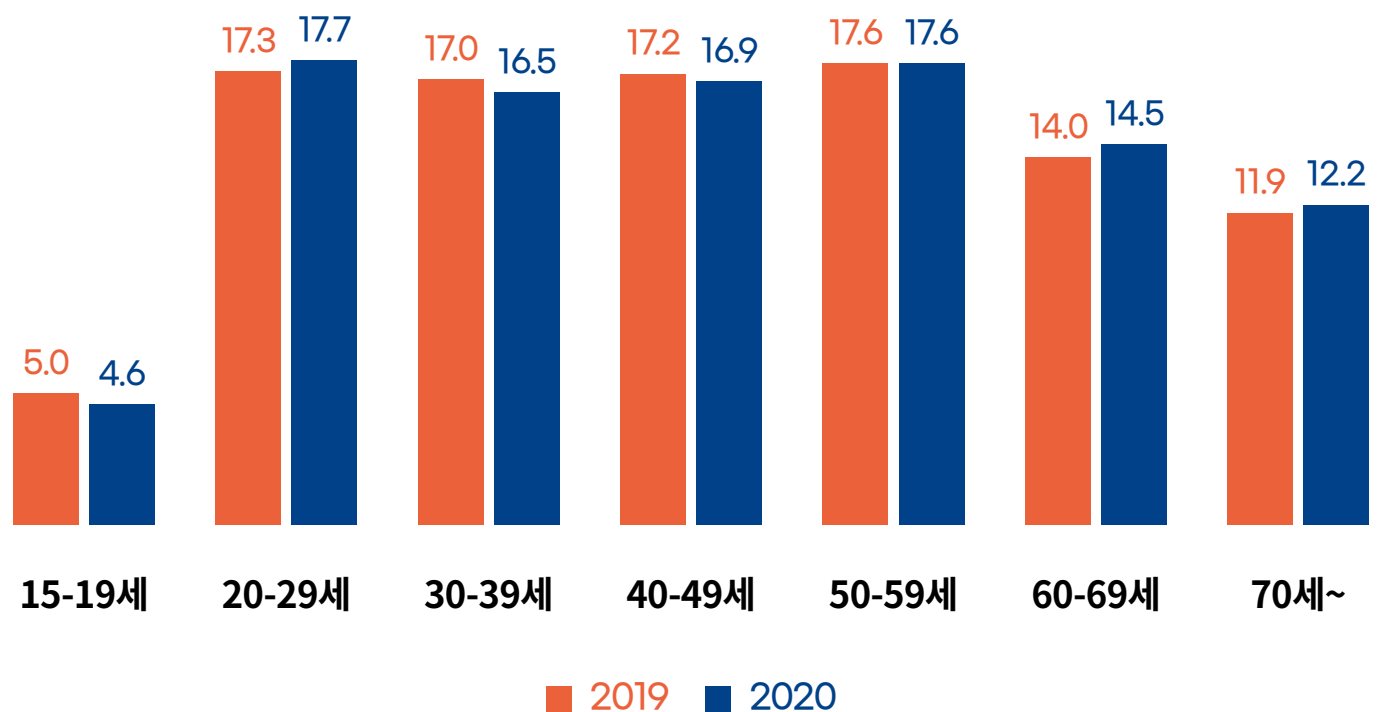
2020년 여성 15,388명, 남성 13,985명 (총 29,373명)

**분석방법** | 여성 내부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일부 지표는 성별로 비교함

서울시민 성별 분포



서울시 여성의 연령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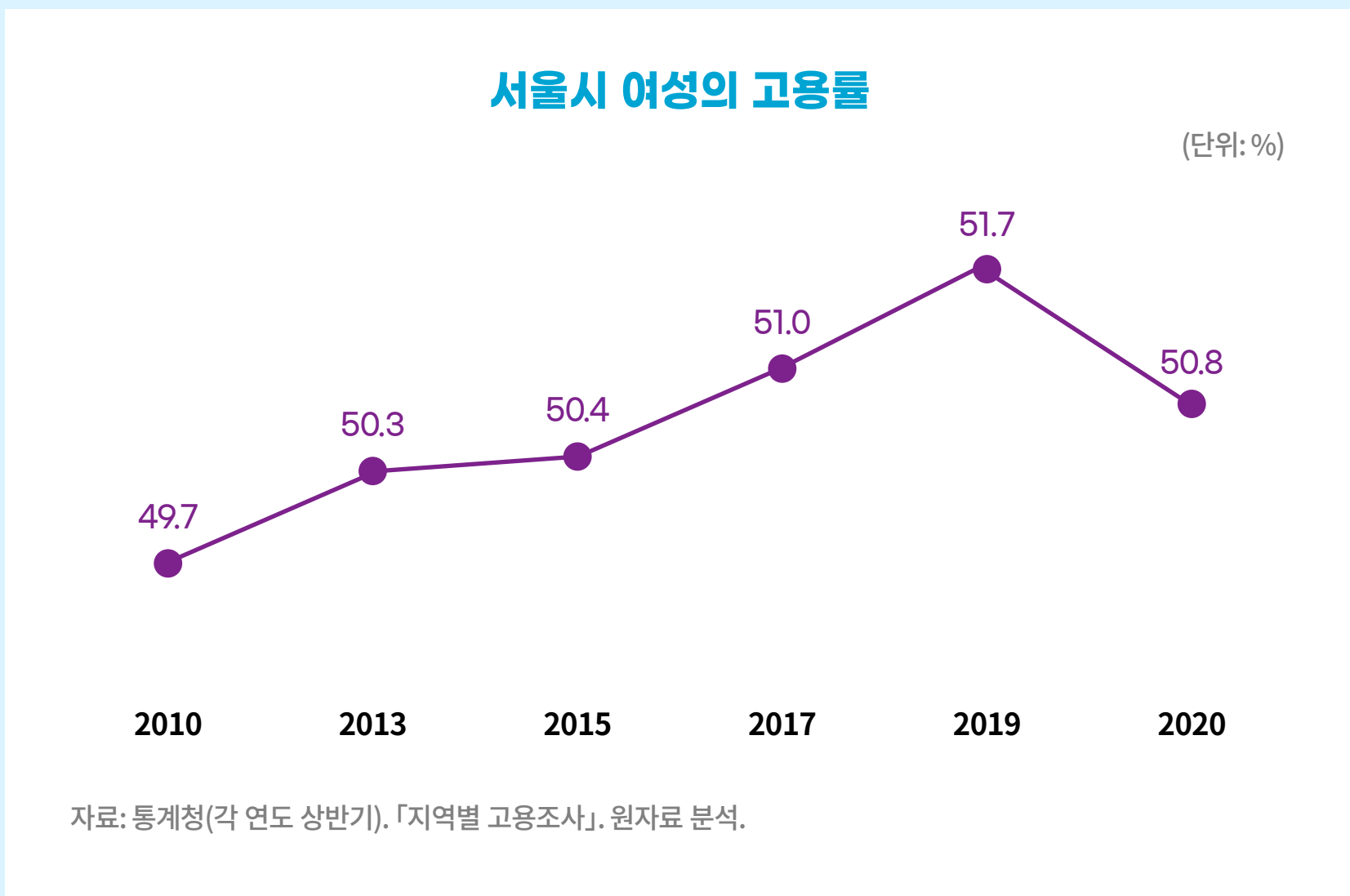
\*UN Women(2020). From Insight to Action.

\*\*여기서는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분석 결과만을 다루고 있으나,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와 정책 수요 등을 포함한 결과에 대해서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코로나19 전후 여성노동의 변화와 과제』(공주 외, 2021)를 참고하기 바람.

# #1 경제활동참가 현황 및 취업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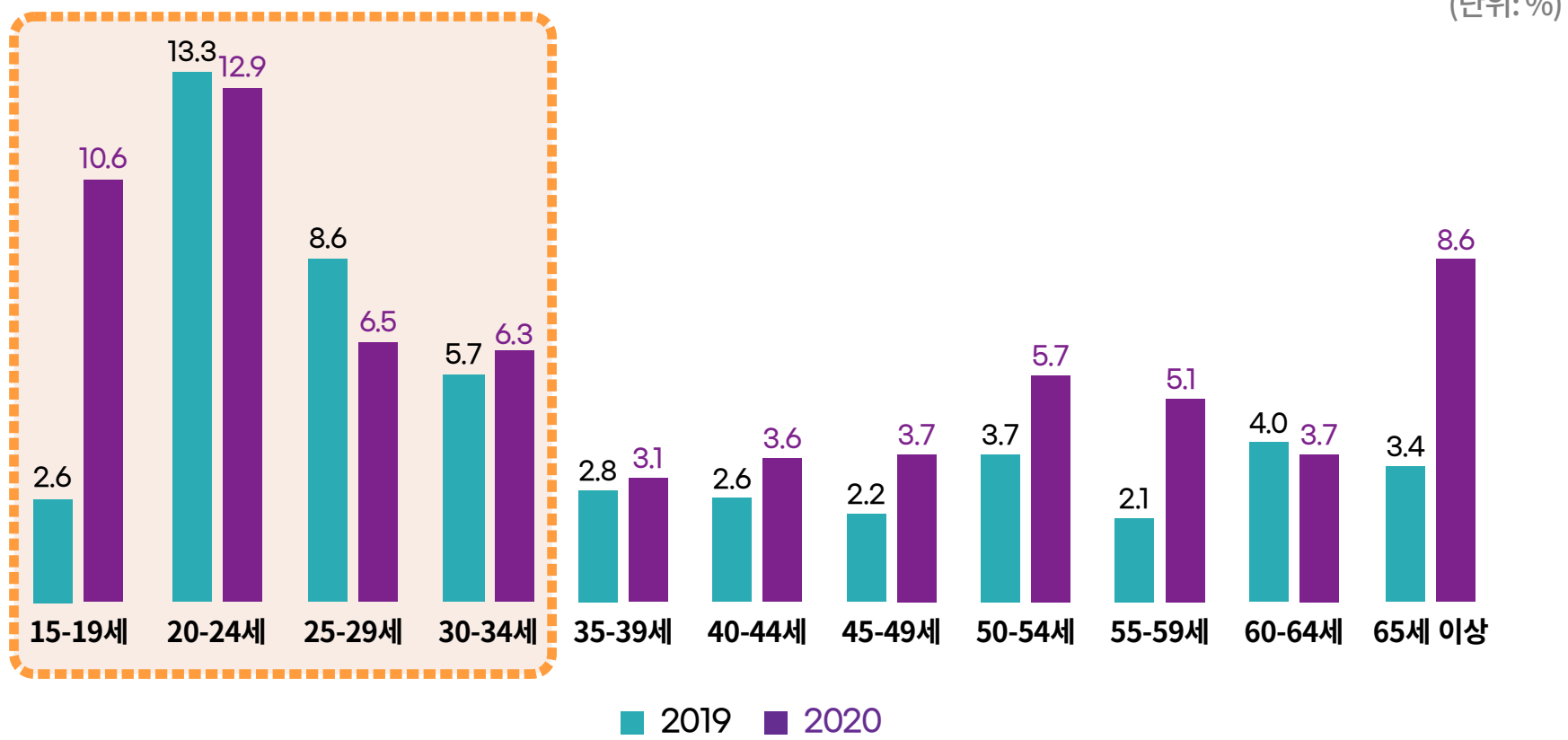
## 고용률 및 실업률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위기가 여성에게 집중됨

- 서울시 여성 고용률: 2019년 51.7% → 2020년 50.8%로, 1년 사이에 0.9%p 감소하여 약 5년 전의 고용률 수준으로 돌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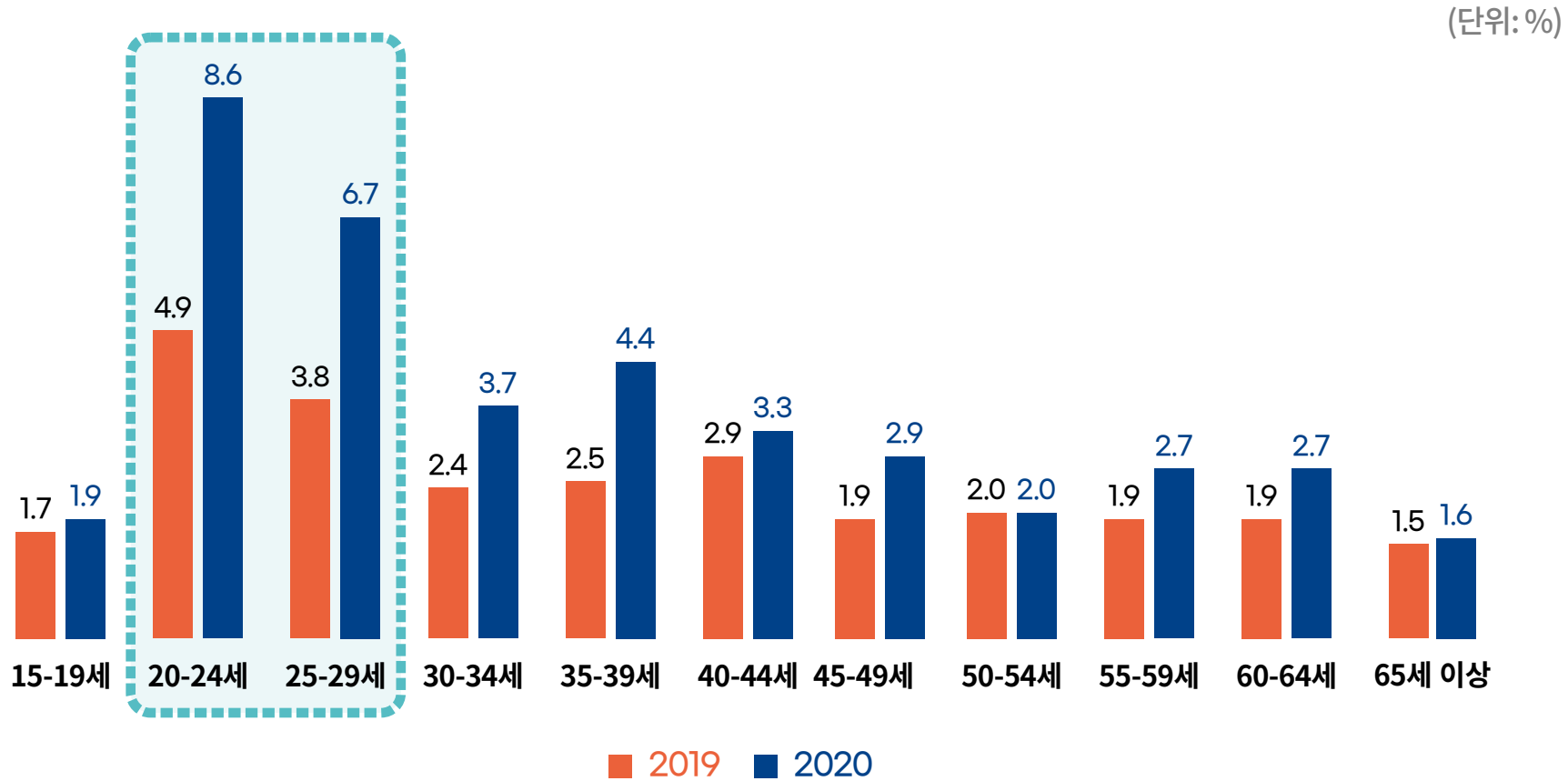
- 서울시 여성 실업률: 2019년 4.9% → 2020년 5.8%로, 1년 사이에 0.9%p 증가함. 과거 경제위기에서는 실직·미취업 시에 노동시장을 벗어나는 경향이 있었으나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는 실직·미취업 시에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가는 여성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실업자에 대한 고용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도 높던 30대 이하 서울시 여성 실업률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취업희망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20대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20대 초반 3.7%p, 20대 후반 2.9%p 증가). 따라서 청년여성의 노동위기에 대한 특단의 고용대책이 요구됨

### 서울시 여성의 연령대별 실업률



자료: 통계청(각 연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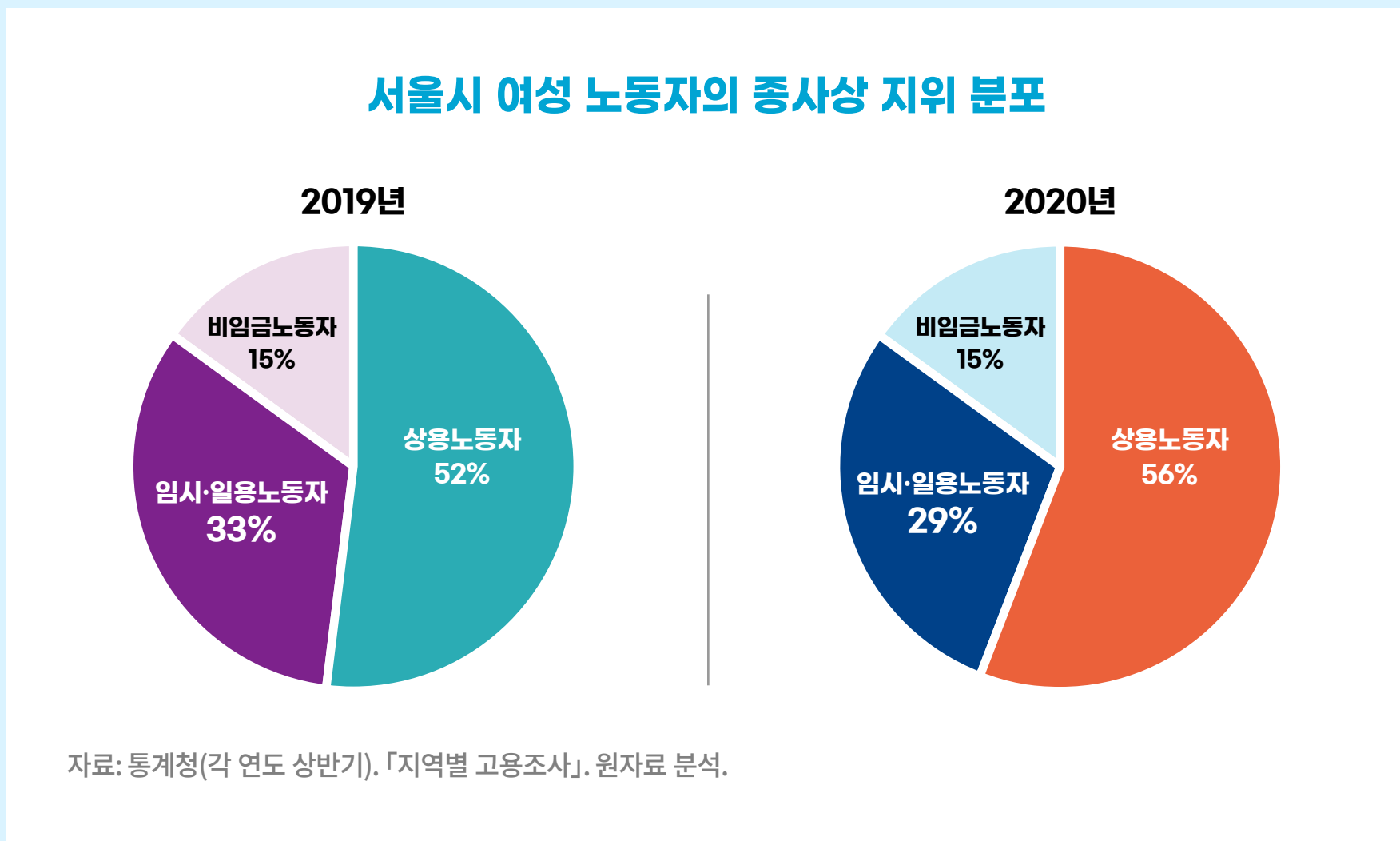
### 서울시 여성의 연령대별 취업희망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자료: 통계청(각 연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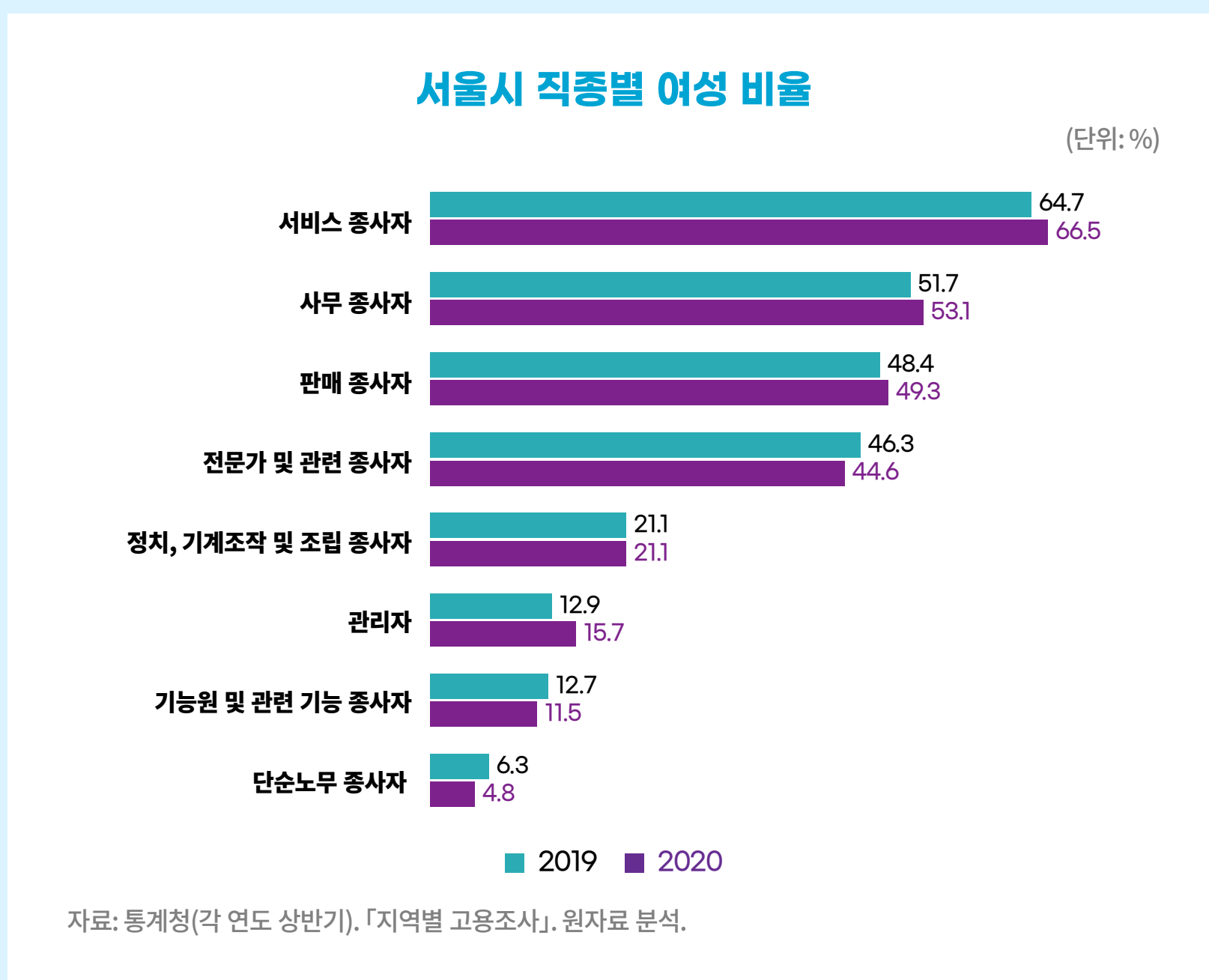
## 종사상 지위: 여성 취업자 감소가 임시·일용노동자에게 집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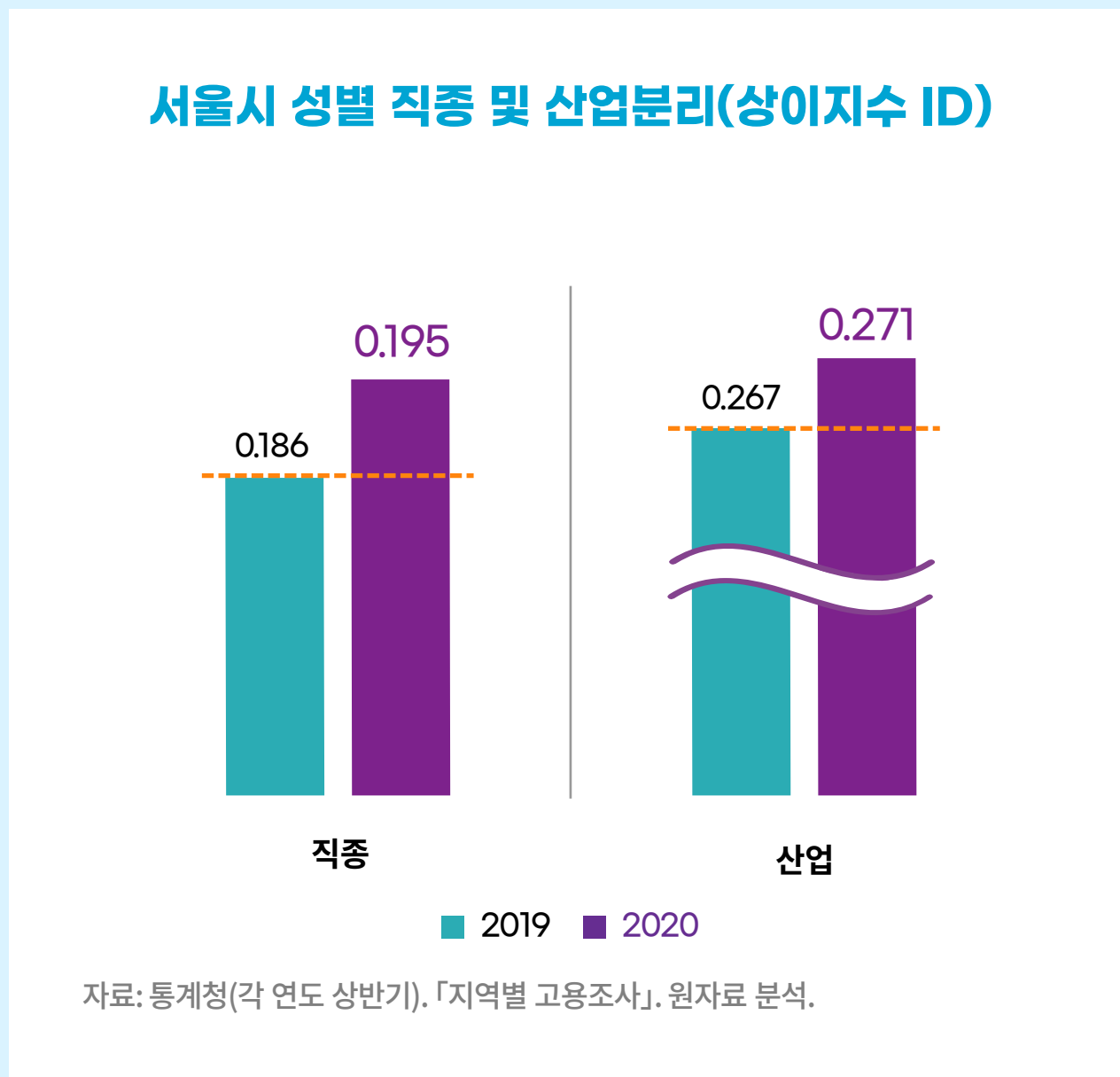
- 서울시 여성 취업자 중 상용노동자 비중은 증가(52% → 55.9%)하였고 임시·일용노동자 비중은 감소(33.3% → 29.3%)함. 즉,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취업자 감소가 임시·일용노동자에게 집중됨
- 특히 코로나19 이전에 노동시장에서 불리했던 집단(고연령, 가구주, 사별·이혼, 저학력)에서 임시·일용노동자 수가 크게 감소함
-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의 특성상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비율 변화는 확인할 수 없는데, 이들을 모두 포함한다면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불안정했던 일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더 크게 받았을 것으로 추정됨



## 직종 및 산업 분포: 성별 직종 및 산업분리 심화

- 코로나19 전후 서울시 직종 및 산업의 성별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에도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과 산업에서 여성 비중이 증가한 반면, 이전에도 여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직종과 산업의 여성 비중은 더욱 감소함
- 상이지수(Index of Dissimilarity, ID) 분석 결과: 2019년 기준 서울시는 성별 직종분리(0.186) 보다 산업분리(0.267)가 큰 편이며, 코로나19 이후 서울시의 성별 직종 및 산업분리는 더욱 심화됨. 따라서 코로나19 위기 회복 과정에서 여성노동자의 직종 및 산업 다변화 정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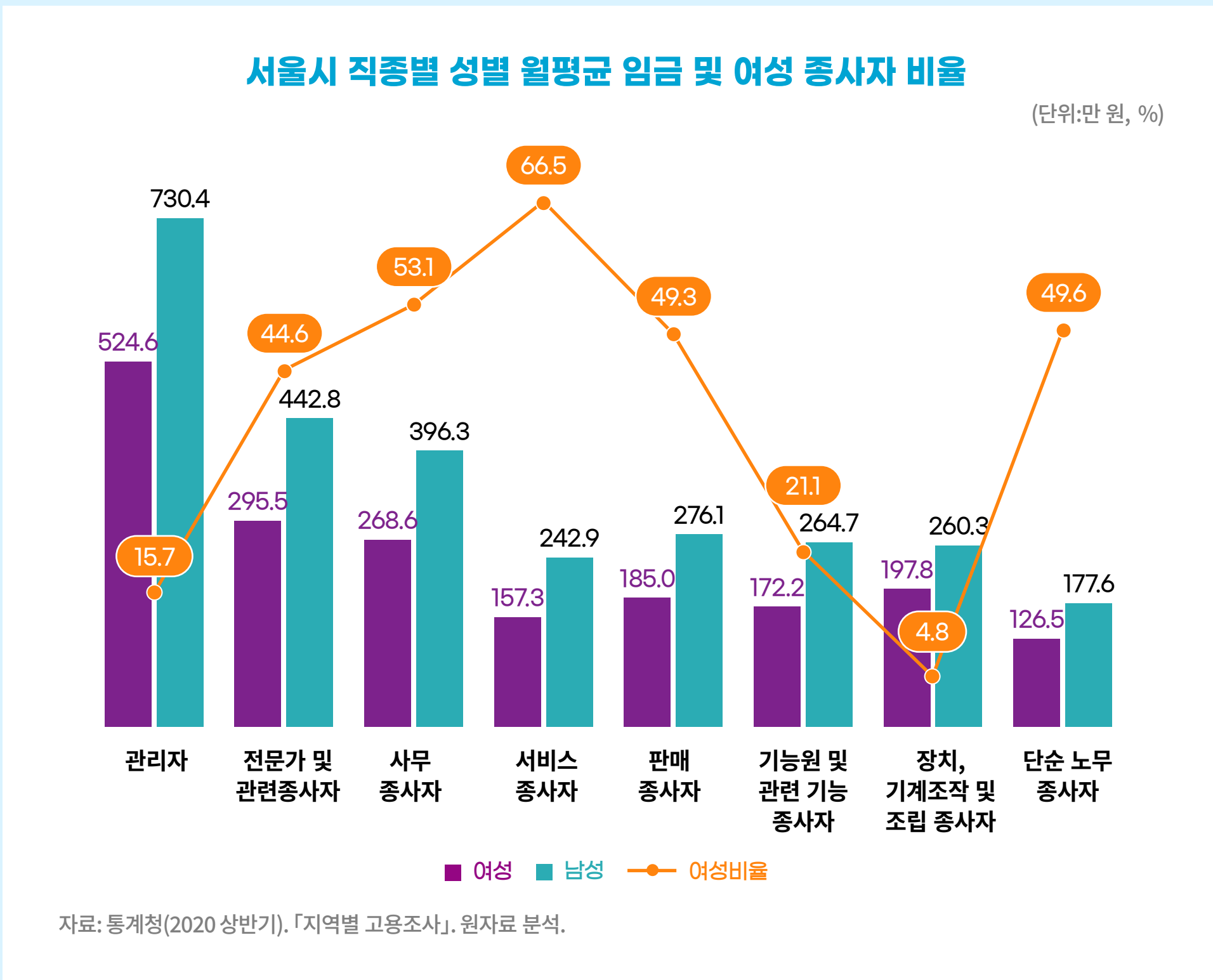


## #2 임금분포

### 직종·산업별 임금 및 여성 종사자 비율: 여성 집중 직종·산업의 여성 평균임금은 낮고 성별 임금격차는 큰 편임

- 서울시 성별 임금격차: 2019년 35.6% → 2020년 34.6%로, OECD 평균(12.8%)\*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임
- 여성의 평균임금이나 성별 임금격차는 직종 및 산업별로 차이가 있음. 특히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직종이나 산업의 여성 평균임금은 낮고 성별 임금격차는 큰 편임
- 성별 임금격차를 낮추기 위해 ① 여성 다수 직종의 노동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 점검 및 제도적 개편과 ②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고 여성이 과소대표된 직종이나 산업에 여성을 많이 진출시키는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출처: OECD(2021). Gender wage gap (indicator). doi: 10.1787/7cee77aa-en (2021년 6월 10일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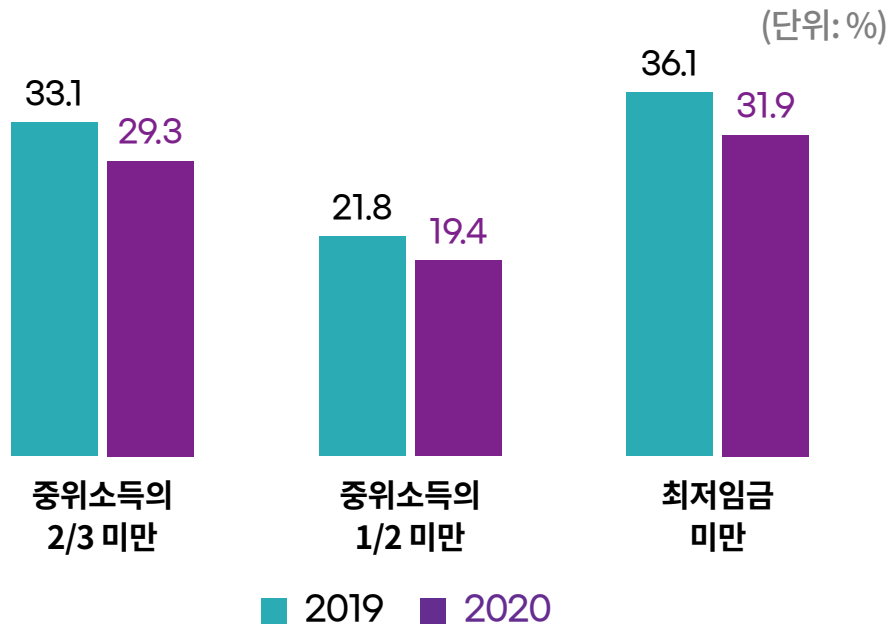
## 저임금 노동자 및 임금 5분위 분포: 여성의 저임금 집중 현상 지속

- 서울시 여성 임금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중위임금<sup>250만 원</sup>의 2/3<sup>167만 원</sup> 미만\*) 비율: 2019년 33.1% → 2020년 29.3%로, 1년 사이에 3.8%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서울시 전체 여성 임금노동자 3명 중 1명은 서울형 생활임금(220만 원<sup>2020년 기준</sup>)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는 의미로, 여성 생계부양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 2020년 상반기 기준 서울시 여성 임금노동자의 59.6%가 1~2분위(하위 40%)에 몰려있으며, 1~2분위에 속하는 총 비율은 코로나19 전후 거의 변동 없음
-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성노동자들(특히 배우자가 없는 저학력 고연령층 여성)이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나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해야 함

\*2019년과 2020년 서울시 전체 임금노동자의 중위임금은 250만 원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분류하는 기준인 중위임금의 2/3는 167만 원 미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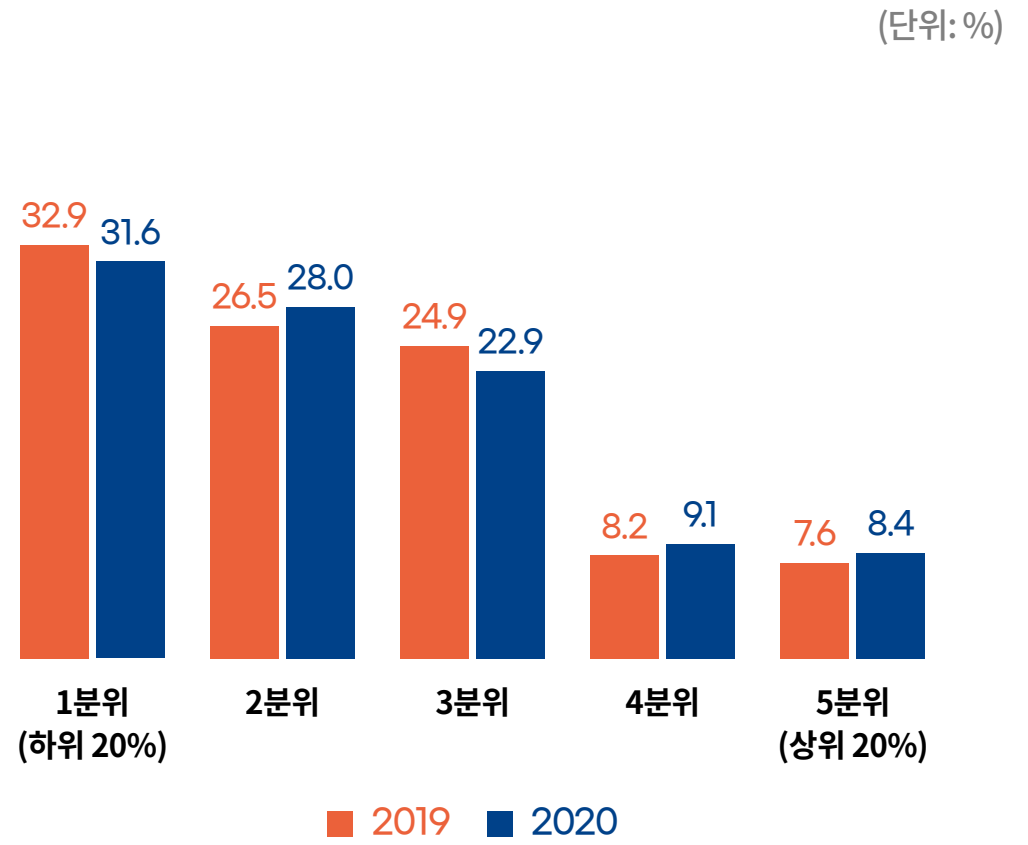
서울시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



주 ①서울시 중위임금은 250만 원으로, 중위임금의 2/3는 약 167만 원, 중위임금의 1/2은 125만 원임.  
 ②최저임금 미만: 월 최저임금(2019년: 174.5만 원, 2020년: 179.5만 원, 209시간 기준) 미만

자료: 통계청(각 연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서울시 여성 노동자의 임금 5분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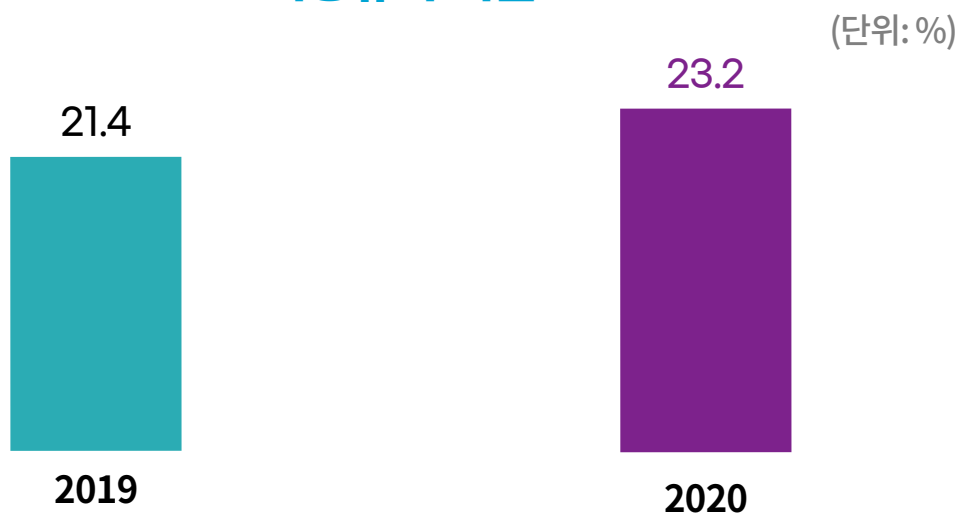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3 비정규직\* 분포

비정규직 및 고용계약기간: 여성 집중 직종에서 비정규직 증가

- 서울시 여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유기계약직)의 비율이 2019년 21.4%에서 2020년 23.2%로 1년 사이에 1.8%p 증가함
- 특히 사무·전문가·판매 종사자 등 비교적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에 비정규직(유기계약직)이 1년 사이에 1.8~3.3%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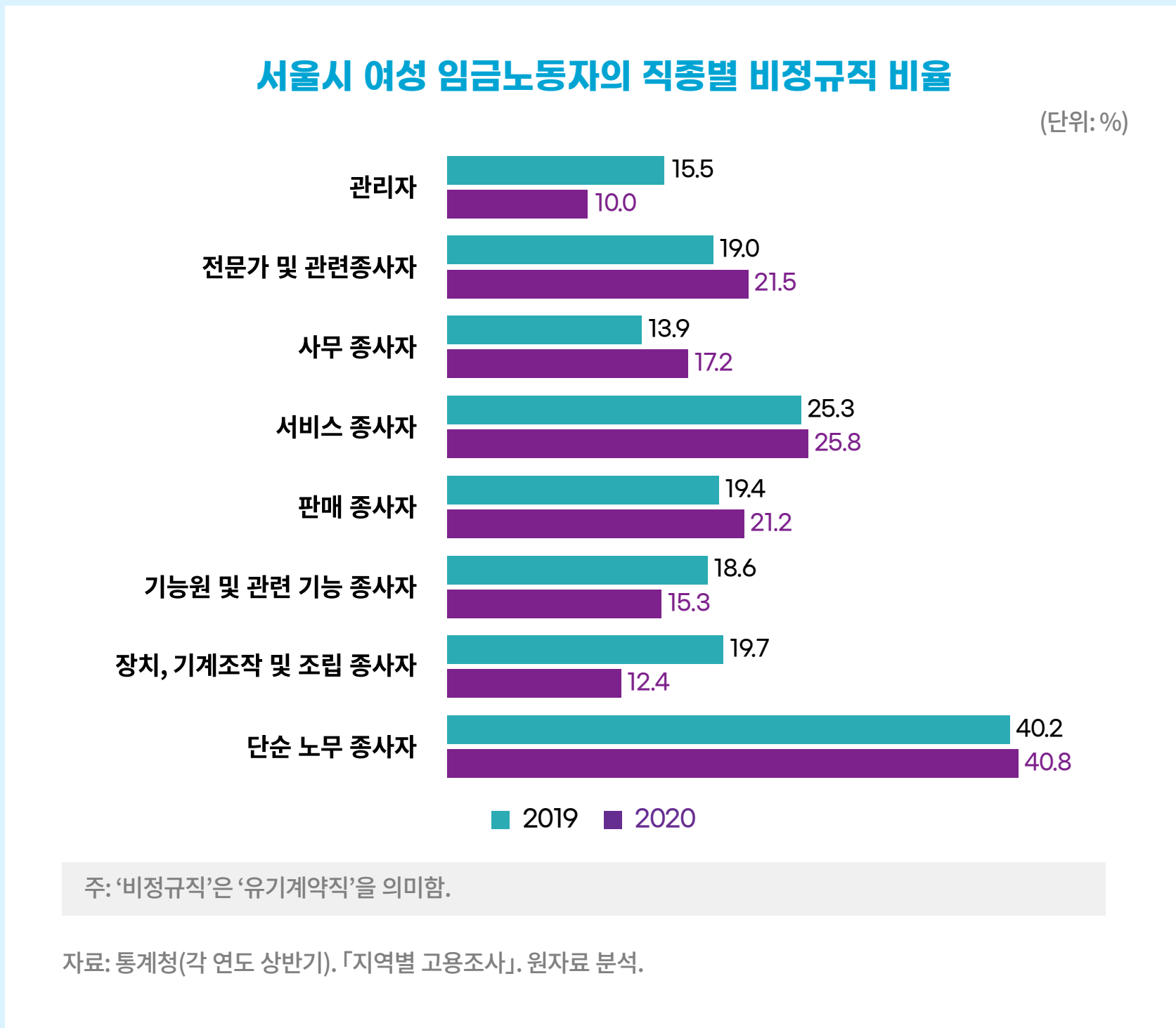
서울시 여성 임금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



주: '비정규직'은 '유기계약직'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 임금노동자 중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고 일하는 노동자 즉, '유기계약직'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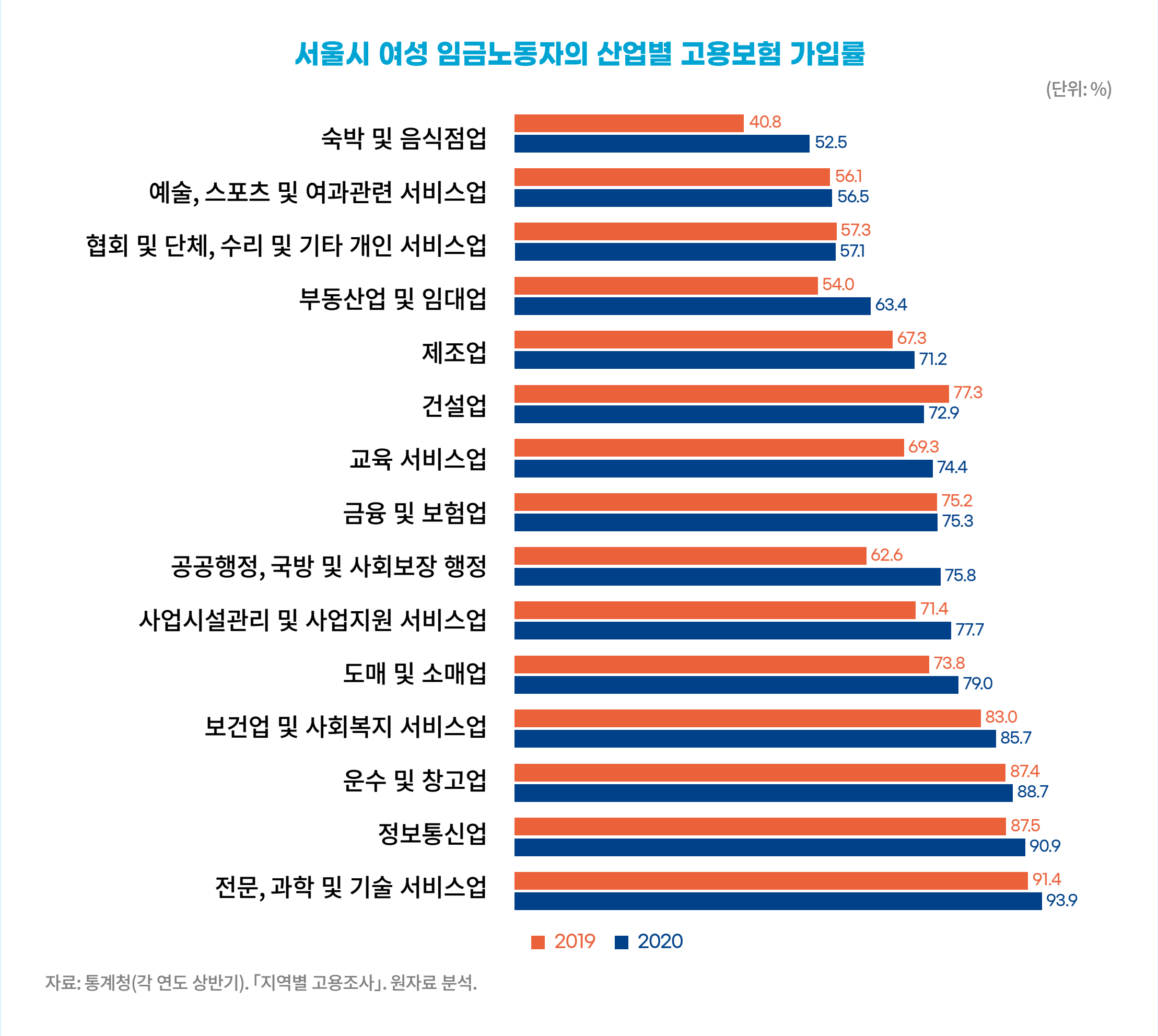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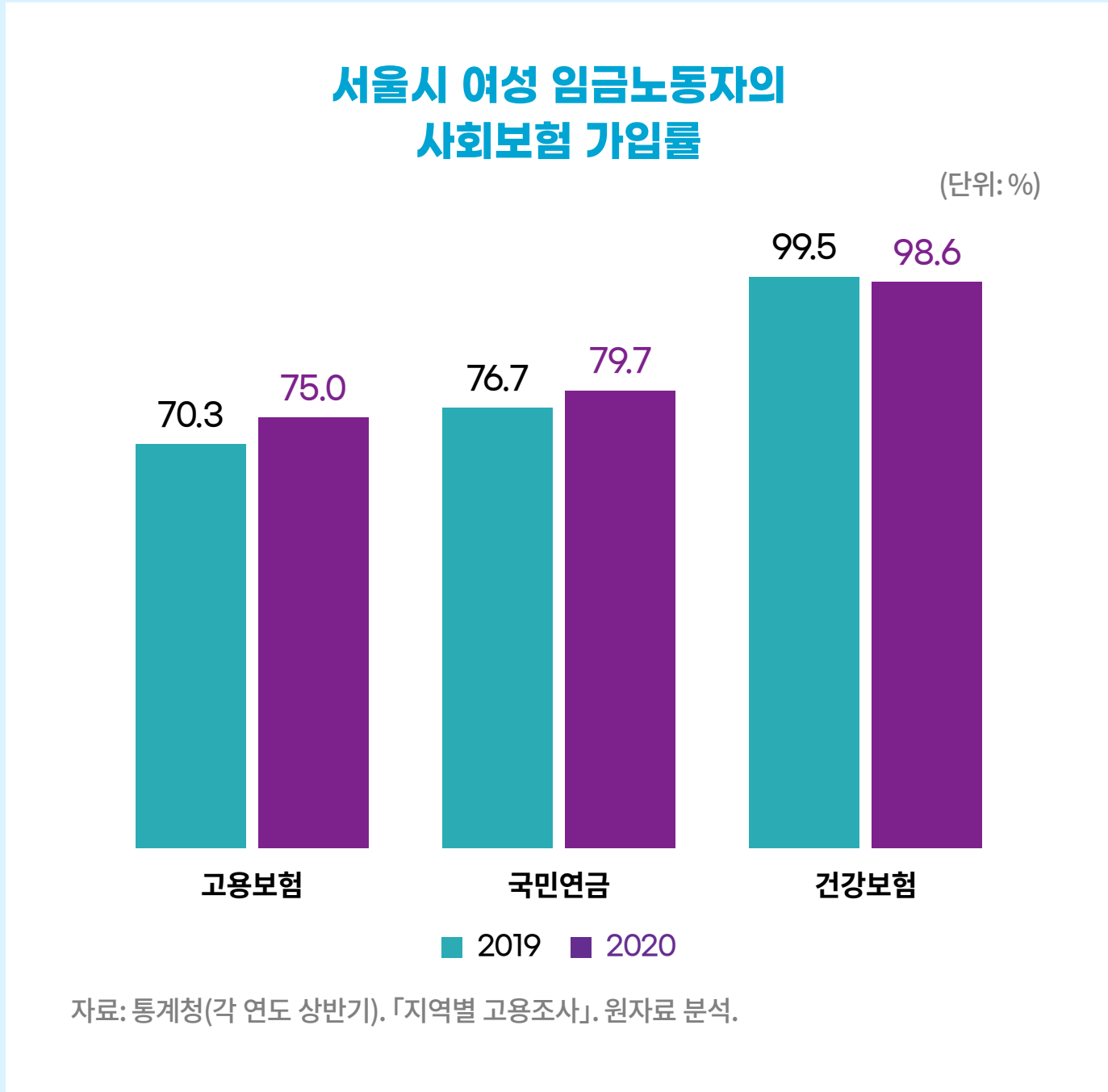


## #4 사회보험 가입률 및 노동시간 현황

### 사회보험 가입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은 증가하고 건강보험 가입률은 약간 감소

- 서울시 여성 임금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2019년 70.3% → 2020년 75%로, 1년 사이에 4.7%p 증가함
- 국민연금 가입률: 2019년 76.7% → 2020년 79.7%로, 1년 사이에 3%p 증가함
- 건강보험 가입률: 2019년 99.5% → 2020년 98.6%로, 1년 사이에 0.9%p 감소함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가입률이 높게 유지되는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가입률이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낮고 직종·산업별 가입률 차이 역시 여전히 큰 편으로,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직종·산업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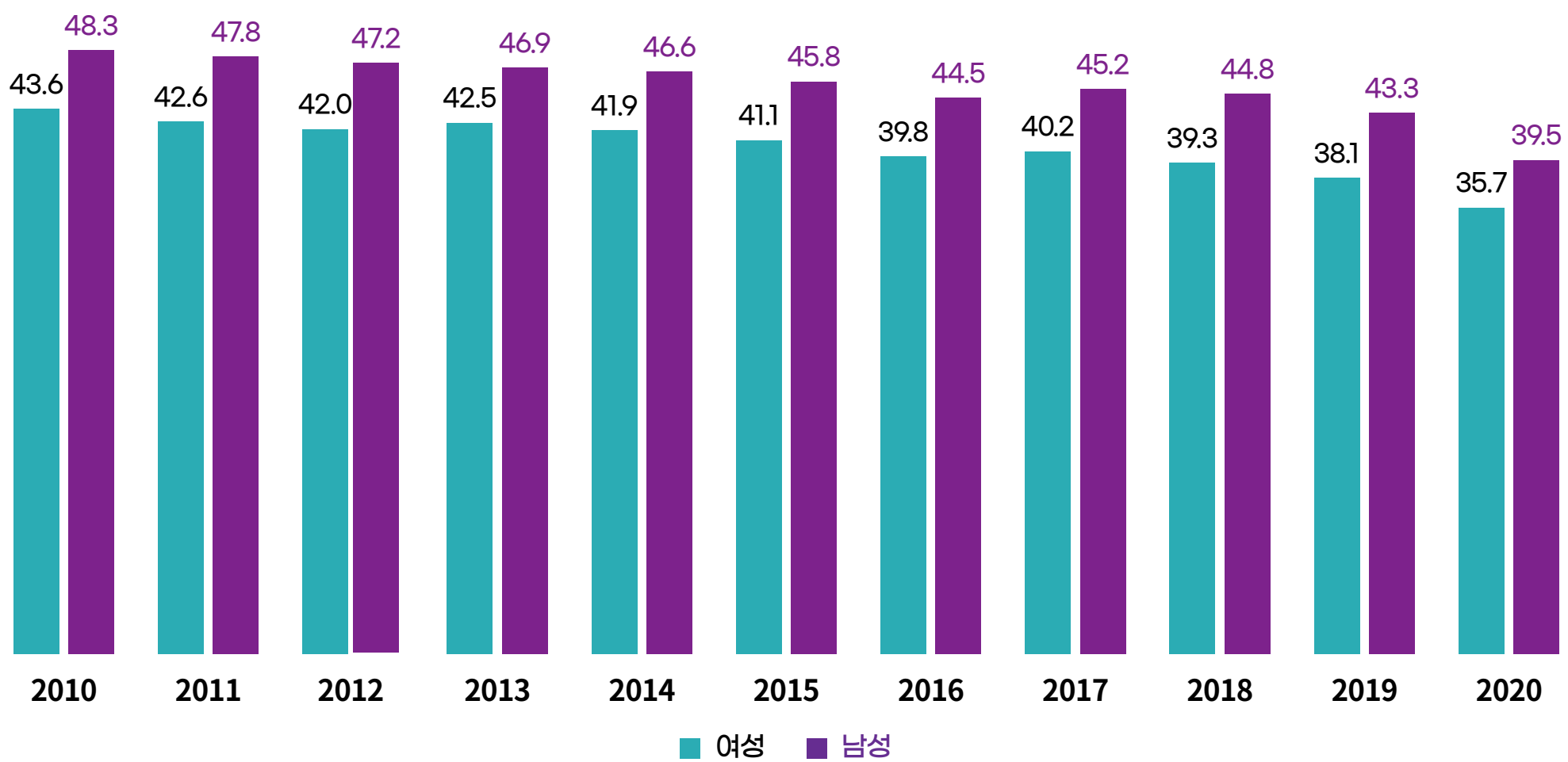


## 노동시간: 주당 평균 유급 노동시간 감소 및 성별 차이 감소

- 서울시 여성 임금노동자의 주당 평균 유급 노동시간: 2019년 38.1시간 → 2020년 35.7시간, 1년 사이에 2.4시간 감소함
- 코로나19 전후 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도 감소함. 남성 비중이 큰 산업에서 남성의 평균 노동시간 감소가 크게 나타났고, 여성은 취업자 감소가 노동시간이 짧은 임시·일용직에 집중되면서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임금노동자의 노동시간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임.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추후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서울시 임금노동자의 성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단위: 시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 서울시 코로나19 여성 노동위기 대응 정책과제

### 단기 코로나19 여성 노동위기 대응 공공·민간 좋은 일자리 창출

- 보건·방역 등 코로나19 관련 서비스 확대 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 실업자에 대한 상담 및 전·이직 지원 강화
- 인턴십 및 산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여성 채용 촉진

### 중장기 노동 생애주기별 대응력 제고

-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 입직 단계의 청년여성 지원 강화
- 경력유지 지원 및 현장맞춤형 재직훈련 강화를 통해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 성별 임금격차 개선 정책 강화

### 중장기 미래 유망 전문 분야 취·창업 지원 확대

- 디지털 경제 분야 등 신기술 숙련기능분야 직업훈련 강화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분야 창업 지원으로 기술 창업 분야 여성 대표성 강화

### 중장기 작업 안전 기준 정립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여성 집중·소규모 작업장 환경 실태 조사 및 정책과제 발굴
- 대면·대인 서비스 노동 안전 기준 정립
- 사회안전망 강화: 서울형 유급병가 확대 적용 및 중앙정부의 유급병가 제도화 견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가입범위 확대

### 중장기 노동시장 변화 파악을 위한 기반 구축

- 프리랜서·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을 포괄하여 일하는 모든 시민에 대한 서울시 경제활동인구 조사 마련: 성별 분리 통계
- 피해 규모 추산 행정체계 구축 및 지원 기준 마련